

오늘의 기사판

오늘의 기사판 (14일)
▲유안근근공원 조성사업 준공식=오후 4시 광주 유안근근공원 중앙광장.
▲제 494회 21세기 장성아카데미=오후 4시30분 장성군청 4층 대회의실. 박창규 한국원자력연구...

무안기업도시 성공방안 세미나

▲제 11회 여성주간 기념식 및 제 8회 '여성 한 마음 축제'=오전 10시30분 담양군 문화회관 대공연장.
(15일)
▲제 7회 동아시아 친환경 심포지엄=오후 1시 순천대 70주년 기념관. '유기재배 벼농사 기술 정보공유'...

장.
▲가족유지력 '잡자는 숲속의 공주'=15일(토) 오후 2~4시, 16일(일) 오후 1~3시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제 318회 진도 토요일속여행=15일(토) 오후 2시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 '그 시절, 그 푸르던 시절'이라는 주제로 남도민요·살풀이·단막창극·관소리 등 공연.
▲죽녹원 상설공연=15일(토) 오후 3시 담양군 죽녹원 야외무대. 무동 가야금 연주단이 가야금 합주 등 공연.
▲제 2회 가사문학길 열림음악회=15일(토) 오후 7시 한국가사문학관.
▲서양화가 박영복씨 개인전=16일까지 문화갤러리. 꽃을 주제로 한 작품 24점 전시.
▲삼·죽을 그리고 선물전=19일까지 지산갤러리.

리. 방우송(예원예술대) 교수의 영상 설치작품 전시.
▲한국화 4인 4색전=19일까지 메트로 갤러리. 안용욱·하운수·정대선·박진수씨 등 한국화가 4명 작품 전시.
▲'三·色·展'=18일까지 신세계 갤러리. 김인자·정남선·조현동씨 등 한국화 3인전.
▲조선왕실의 가마전=30일까지 북포 국립해양 유물전시관. 왕실에서 사용했던 가마전시.
▲원곡화 미술전 '인간과 커뮤니케이션 생명전'=31일까지 일곡 갤러리. 백담 무천 스님 작품 전시.

역사속의 오늘

▲파리 시민, 바스티유 감옥 습격, 프랑스 대혁명 일어남(1789)
▲박문국 폐지(1888)
▲이준 열사, 헤이그에서 활보 세상 떠남(1907)
▲시인 천마 유치환 태어남(1908)
▲독일 나치시 일당, 독재정권 수립(1933)

뉴스퀴즈

20. 북한이 지난 5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중·장거리 미사일 7기를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초비상이 걸렸고,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 발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 7기 중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① 대포동 2호 ② 패트리엇
③ 나이키 ④ 광명성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처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검색절정 키워드

제 3호 태풍 '에위니아(EWINIARI)'가 7월 셋째 주 가장 많이 오르내린 검색어를 차지했다. 에위니아는 당초 예상보다 위력이 약했지만 적지 않은 피해를 남겼다. 전남지역의 경우 14일 현재 집계된 피해액은 163억1천800만원. 하지만 피해 접수가 잇따르고 있어 액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남도 재해대책본부는 예상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분할상도 네트즌들의 클릭 세례를 받았다. 협상도 의약품과 의료기기 작업반의 협상이 중단되는 등 14개 분야 대부분 협상이 큰 입장차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분할상 개과과 더불어 반(反)FTA 시위도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는 사실과 다른 FTA 관련 글로 넘쳐나면서 정확한 사실을 알고자 하는 네티즌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같은 피서지 어디냐" 인터넷 북적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중·장거리 미사일 7기 발사에 대한 검색 빈도도 높았다. 조니 댄 주연의 '캐리비안의 해적: 망자의 함'도 화제의 검색어에 포함됐다. '캐리비안의 해적'은 최근 박스오피스 1위에 이어 국내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 19년만에 화려하게 돌아온 '슈퍼맨 리턴즈'도 고개를 숙였다.
박치기 한방에 지내던 지단도 인터넷 상에 오르내렸다. 우승국 이탈리아보다 '지단 박치기'에 초점이 맞춰졌고, 인터넷에서는 지단을 소재로 한 다양한 패러디물이 만들어지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까지 박치기 사건을 조사하기로 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하계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통해 7월28일부터 8월3일까지가 올해 여름 휴가의 피크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탈렌트 이의정(31)씨도 화제의 검색어에 포함됐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영화 촬영 중 심한 두통을 느껴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일부 언론을 통해 뇌종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면서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병원 측의 진단 결과 뇌종양이 아니라 머리 한쪽에 백혈구가 묻어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상당수 네티즌들은 완치를 바라는 댓글을 잇따라 올리기도 했다.
이외 오는 27일 개봉하는 영화 '괴물'(감독 봉준호)을 비롯, 가수 신해철 등이 검색어 순위에도 이름을 올렸다. /김지우기자 dok2000@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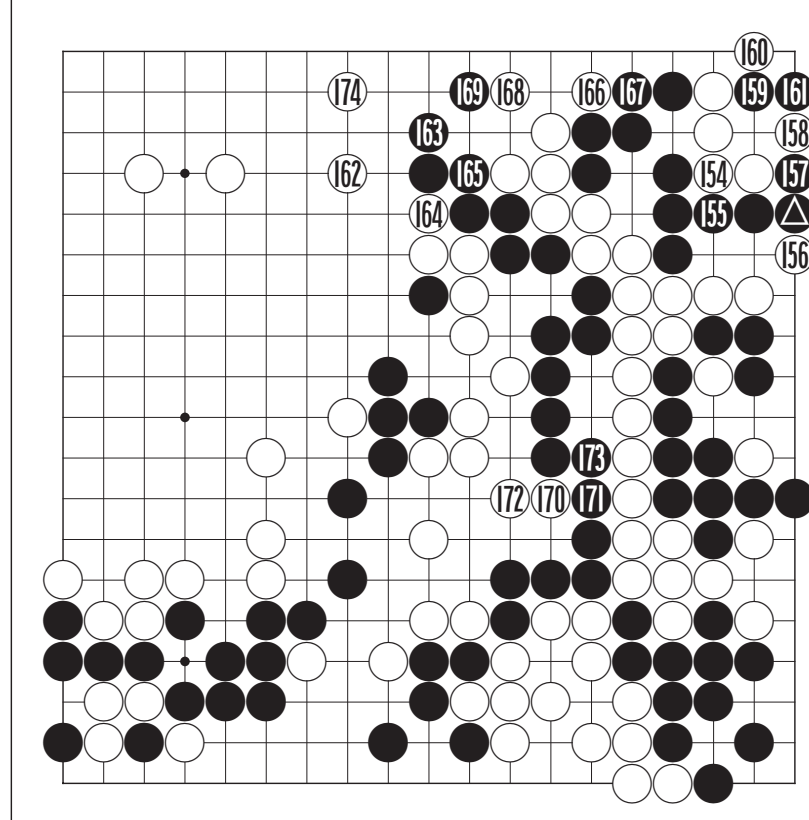
주간 금상 검색어 (네티즌 닷컴 제공)
1위 에위니아 6위 지단
2위 한미FTA 7위 이의정
3위 북한미사일발사 8위 괴물
4위 캐리비안의해적2 9위 정육
5위 여름휴가 10위 신해철



높은 에메랄로 국내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한 조니 댄 주연의 '캐리비안의 해적: 망자의 함'.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4일(음 6월 19일 甲辰)

Table with 2 columns: Animal sign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corresponding fortune text.



제15회 光日盃 광주전남지역비록대회 '마지막 수상전' 2회전 제9보(154~174)

기우준 5단은 마지막으로 우상귀 흑의 하점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흑 ▲로 내려서서 수단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곳의 싸움은 백이 선수가 되어야 말이 되는 곳이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156으로 넘는 것을 방지할 수 밖에 없어 후수가 되어서는 흑이 157로 밀고 들어 가 수상전이 되지 않는다. 기우준 5단의 철벽수비가 빛을 발하는 장면이다.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은 중앙의 거대한 흑 대마와 수상전을 해보는 것이다. 기 5단은 이번 우선 162로 봉쇄하여 수상전에 들어 갔다. 그러나 이 흑 대마는 바깥수가 많아 허 5단은 격정을 하는 모습이 아니다. 우선 163으로 든든하게 철주를 내리고 고분고분 응수하고 있다.
이 대마 수상전은 열릴 보면 빅도 놀릴 수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흑은 봉쇄가 약간 느슨한 반면 백은 완전하다. 이것이 변수가 될 것 같다.
(오규철 9단·본보 비록해설위원)

바둑소식

일본의 다카오신지 9단이 지난 11~12일 가나가와(神奈川)현에서 열린 제 61기 일본 본인방 도전7번기 제6국에서 도전자 아마미 9단에게 179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뒀다.
다카오 9단은 이날 승리함에 따라 종합전적 4승2패로 본인방타이를 방어에 성공했다. 다카오 9단은 시중 실리에서 앞선 뒤 우편에서 흑 165로 건너가는 발 빠른 끝내기 승부를 마무리했다.
다카오 9단은 후지사와 명에기성의 문화생 출신으로 지난해 장위 9단을 4-1로 제압하고 본인방 타이틀을 획득한 뒤 9단으로 승단했다. 지난 96년 신인왕전 등 일본 기전에서 8차례 우승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689> 오하이오 니혼고 <689> 니하오 쫑구워 <407> 한자 이야기 <307>

Why don't we? ~ 하지구
A: Hey, How about a drink?
B: Good idea. Have you got any money?
A: Mmm..... why don't we go Dutch?
B: No way! You can treat me this time.
A: 이봐, 한잔 하는 거 어때?
B: 좋지, 돈은 있어?
A: 음... 각자 부담하지구.
B: 그건 말도 안되지, 이번에는 자네가 사랴구.
How about ~? : ~은 어땠는가?
- What about ~? : ~하는 것은 어땠는가? (새로운 제안을 할 때 사용됨)
Have you got ~? = do you have ~?
Why don't we ~? = Let's ~ (~합시다.)
- Why didn't you ~? = 왜 ~ 하지 않았어?
No way! : 그런 말도 안된대네. 그런 말 말개나.

テッコンドとボクシングを組み合わせたもの 태권도와 복싱을 결합시킨 것
A: アメリカでは日本の空手よりも、テッコンドがよく知られているそうですね。
B: そうみたいです。練習(れんしゅう)している人が多いというところなんです。
A: えへ、でも最近(さいきん)はタイボというのが人気を呼んでいますよ。
B ああ、テッコンドとボクシングを組み合わせたものでしょう。
A: 미국에서는 일본의 가라데 보다도 태권도가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B: 그런 것 같습니다. 연습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A: 허, 하지만 요즘은 태보라고 하는 것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B: 아, 태권도와 복싱을 결합시킨 것 말이죠?
空手(からて) : 가라데(일본무술의 하나)
人氣(にんき)を呼(よ)ぶ : 인기를모으다. 인기를 끌다
組(く)みあ(あ)わせる : 조합하다. 짜맞추다

我买一张软卧票 일등 침대차 표로 한 장 주세요
A: 您买软卧票还是硬卧票?
B: 我买一张软卧票。
A: 您买一张软卧票还是硬卧票?
B: 我买一张软卧票。
A: 您买一张软卧票还是硬卧票?
B: 我买一张软卧票。

拓本(탁본) 밀집 탁, 근본 본
탁(拓)은 수(手)+석(石: 音符)으로 이루어져, 열어 넓이다의 뜻이다. 본(本)은 나무뿌리의 굵은 부분에 흰선(-)을 더하여 근본을 나타내는 지사문자이다.
탁본(拓本)은 석비(石碑)등의 표면에 화선지를 올려놓고 먹물을 묻힌 솜방망이로 두들겨 문자나 문양을 뜨는 것으로 탁본(拓本)이라고도 한다. 판화(版畫)·도장·인쇄(印刷)등과 다른 점은 범종(梵鐘)이나 석비의 면을 먹으로 더럽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뜨러는 대상 위에 종이를 대고 그 위에서 먹물로 가볍게 두들기듯이 하기 때문에 새겨진 선 부분은 하얗고, 새긴 부분 이외의 도드라진 부분은 까맣게 펴지고, 좌우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같은 방향, 같은 크기로 떠진다는 것도 탁본의 특징이다. 한편 낚시에서 사용하는 어막(魚括)은 물고기에 먹을 직접 찰하여 거기에 종이를 대어 뜨기 때문에 좌우가 반대로 된다.
석비의 문자나 와당(瓦當)의 아름다운 조각·문양 등의 탁본은 그 자체로 흑백의 간소하고 고상한 예술품이 된다. 한편 탁(拓)을 '개척(開拓)처럼 '좁다' '확장하다'의 의미로 사용할 때는 '척'이라고 발음하고 있다.